

기계설비인의 자긍심 고취 계기 되길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

초록과 붉은 태양이 함께하는 7월, 기계설비의 날 제정을 성심(誠心)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특히 기계설비와 관련된 학술, 시공, 제조, 기술, 설계 분야의 5개 단체로 구성된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기계설비산업

의 비전 제시 및 기계설비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계설비의 날을 제정하였기에 기계설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계설비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건물이 대형화 및 첨단화됨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고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주 공간의 안정성과 안전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분야를 구성하는 기계와 소방분야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여 동반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기 기대합니다.

소방에서도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1회 기계설비의 날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 산업을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뜻 깊은 날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기계설비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과 권익옹호는 물론, 건설 관련 제도 시책과 전문시공기술의 향상 등 건설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경제 발전에도 공헌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기계설비의 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시작점

존경하는 기계설비인 여러분!

지난 기계설비 산업분야의 숙원이었던 ‘기계설비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계설비의 날’ 제정이 기계설비인의 자긍심과 위상을 고취함은 물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시작

점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계설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왔으며, 여기에는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

기계설비산업의 학술, 기술, 제조, 시공, 설계 분야를 총망라하여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구성된 지 30년 만에 ‘기계설비의 날’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30년 동안 모든 기계설비인의 열정과 끈기가 하나된 힘으로 표출된 것이기에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기계설비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30년의 경험과 전통을 밑거름으로 ‘기계설비의 날’을 통해 기계설비산업분야

의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도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장치 등 에너지혁명이 초래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기술역량을 집중하여 기계설비 산업분야와 함께 대한민국이 선진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30주년과 함께 ‘기계설비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담아 축하드리며 기계설비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세계로 미래로 크게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인과 기계설비산업의 무궁한 발전 기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문창수 중앙회장

만물의 생명력이 왕성해 지고 신록의 푸름이 더해지는 7월, 오늘 이렇게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축하를 위한 인사말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만 기계설비인 여러분!

기계설비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건물과 플랜트의 최적상태 유지와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에너지 및 비용의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등 기계설비인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기계설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이 날이 높아가는데 개최되는 이번 ‘기계설비의 날’ 행사는 기계설비분야 관련 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설비설계협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기계설비산업의 비전 제시와 기계설비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기계설비인과 기계설비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기계설비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합니다.